

2월7일(월)/ 고전 15:50~58

제목: 부활에 관하여(6)

크리스찬은 언젠가는 죽지 않는 새로운 몸 상태로 질적으로 변화된다(51절). 왜냐하면 일반적인 몸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50절).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이다(52절). 그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지는데 그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이미 죽었던 모든 크리스찬들은 새로운 신체를 가지고 살아난다. 그 때 살아 있는 크리스찬들도 한 순간에 새로운 신체로 덧입는다. 죽었든지 살았든지 상관 없이 예수님과 관계있는 모든 사람의 몸은 썩지 않는 몸 상태로, 영원히 죽지 않는 신체 상태로 변한다(53절). 그 때는 체질 정도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에서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로 인해 크리스찬은 죽음을 정복하게 된다(54절).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자기 당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언젠가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 때에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몸이 변화되고, 함께 일하던 동료의 몸이 변화될 것이다. 이 한바탕 대소동이 있을 때 나와 당신도 거기에 주역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2월8일(화)/고전 16:1~12(1)

제목: 따로 저축해 두세요.

바울은 헌금 문제에 대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매주 첫날에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라고 가르쳤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분부하였다(1~2절). 그래서 자기가 갈 때 그제야 부랴 부랴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 교회에 갈 터인데 가면 얼마동안 거기서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였다(5~6절).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다고 자신의 상황을 통보했다(8절).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 액수는 정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항상 그 일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저축해두라고 하였다. 바울의 교회관은 편협한 개교회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교회는 자기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 여기에 모든 교회에 배워야 할 진리가 있다. 교회는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기관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만큼 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기관이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2월9일(수)/고전 16:1~12(2)

제목: 잠시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에 대하여 말문을 연 뒤 마지막으로 자신의 협력자 두 사람을 추천하였다. 첫째는 디모데였다. 고린도 교회 상황은 노련한 바울도 다루기 힘든 형편이었으므로 젊은 디모데에게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를 알아보지 말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존중하라고 하였다(10~11절). 사람은 그가 하고 있는 일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리고 바울은 아볼로를 추천하였다.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있었다(1:12). 아볼로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다(12절). 교회가 한 사람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지면 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교회에서 혹시 ‘나’ 한 사람 때문에 분란이 생기면 자숙하고 그곳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그 분쟁의 중심에 날마다 들어가서 진두지휘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사람을 끌어드리는 것 보다 초연한 자세로 있는 것이 좋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떠나 있는 것이 지혜롭다.

2월10일(목)/고전 16:13~14

제목: 사자처럼, 양처럼

바울은 편지의 마무리 부분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군사적인 명령을 내렸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3~14절) 이 문장들은 모두 군사적인 용어이다. 불침번을 서는 보초병처럼 항상 깨어있고 공격을 받으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말고, 남자답게 싸우라는 말은 부하들에게 내리는 장교의 명령이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 바울은 조용하며 여성적인 어투로 전환한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5절) 여기서 크리스찬의 윤리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크리스찬은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사자처럼 달려들어 싸워야 한다. 그런 경우가 아닐 때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친구가 되고 동지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크리스찬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적에 대해서는 사자처럼 맹렬해져야 하고 동지에 대해서는 양처럼 순해져야 한다. 크리스찬에게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결코 부족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기가 쉽지 않다, 사람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느 한 곳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2월11일(금)/고전 16:15~18

제목: 교회가 존경해야 될 사람

바울은 아가야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스테바나와 그의 가족들이 지금도 도처에서 많은 믿음의 동료들을 돕고 있다고 전했다(15절). 스테바나와 그의 가족들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생생한 정보를 주며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다. 스테바나와 그의 가족들은 사실 고린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대신 감당함으로 교회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었다(17절) 그래서 바울은 스테바나와 그 가족들이 고린도교회를 방문할 때 고린도 교회는 그들을 알아주며, 그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며, 감사를 표해주기 바란다고 부탁하였다(16절, 18절). 교회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친 사람에게 존경을 보내야 한다. 당대에 이름을 날린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묵묵히 교회에서 봉사하며 자신의 일생을 드린 사람들이 많다. 교회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현재의 공식적인 지도자만 높이 고 그가 그러한 지위에 있을 때에만 그의 가족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평신도라 할지라도 일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보이면 그의 노고와 업적을 알아주고 존경과 사랑을 보내야 한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